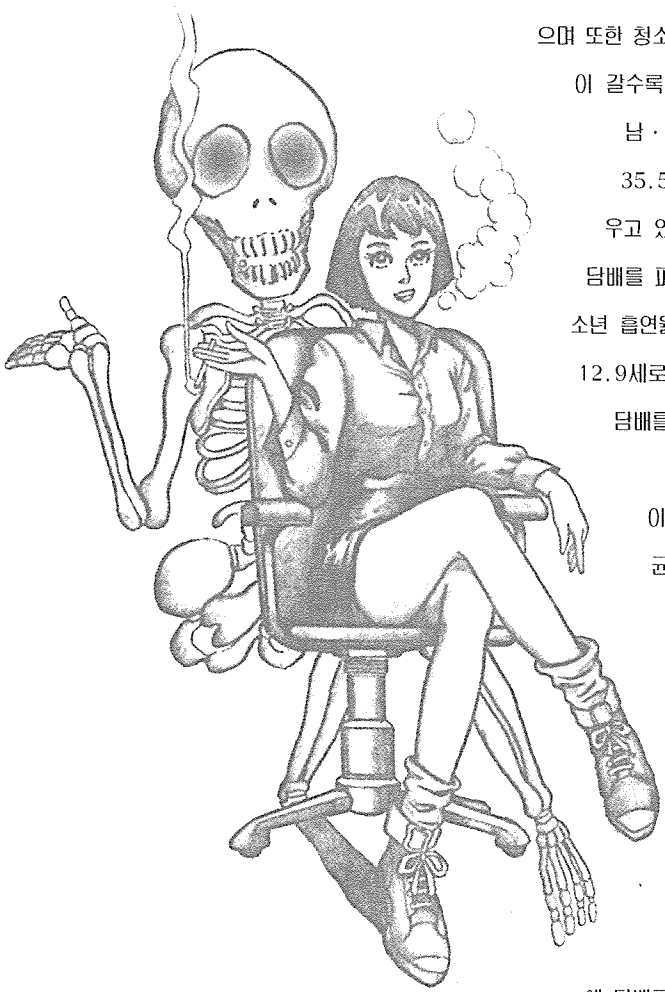
고3 남학생 흡연율 41.6%



청소년 흡연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이 담배를 처음 피우기 시작하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남·녀 중학생의 3.9%, 남자 고등학생의 35.5%, 여자 고등학생의 8.1%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특히 고3 남학생의 경우 41.6%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청소년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첫 흡연 연령도 12.9세로 청소년의 대부분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고 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11분의 수명이 단축되므로, 우리 나라 매일 흡연자의평균 흡연량, 즉 하루 17.5개비를 피울 경우 일주일에 22.4시간이 단축되어 흡연자는 일주일에 하루를 잃어 버리게 되고, 담배를 일찍 피울수록 생명이 더 단축된다. 살아 있는 동안도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건강하게 지내지 못하게 되어, 25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9배인데 비해서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2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유해한 흡연을 청소년기에 시작하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흡연,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흡연, 대중매체에서의 흡연 등 흡연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가정 및 사회적 분위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흡연은 가정 및 생활 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정, 학교 및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